

북카페 잔디와 소나무



‘느림의 미학’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북카페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요란한 변화가를 등지고 동교동 주택가로 들어서면 얼마지 않아 북카페 ‘잔디와 소나무’를 만날 수 있다. 넓고도 쾌적한 내부, 단아하고도 독특한 인테리어, 한쪽 벽면 서가에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은 지나치는 걸음을 단박에 붙들 만큼 인상적이다. 몇십 권의 책을 비치해 두고 문화공간이라 생색내던 여느 북카페에 식사했던 사람이라면, “멋진 곳인 걸”하고 감탄할 만도 하다. 잔디와 소나무를 차린 이가 잡지 <좋은 생각>의 발행인 정용철 씨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 역시!”하고 무릎을 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서울의 명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북카페 ‘잔디와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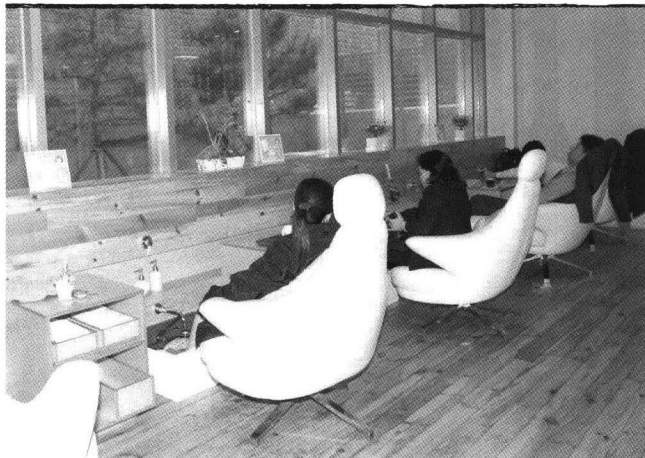
☞ **책 읽는 풍경이 아름다운 공간,
누구든 책을 집어들지 않을 수 없다**

‘잔디와 소나무’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으레 한 잔의 차를 즐기며 책읽기에 골몰해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진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다면 잔디와 소나무가 제격. 여기저기서 사그락사그락 책장 넘어가는 소리,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긋하다. 당장 출입문만 열면 온갖 속도로 어지러운 세상인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숫제 다른 세계다.

‘잔디와 소나무’ 관계자는 “몇 권의 책을 갖고 와 한 나절 책을 읽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며 “‘잔디와 소나무’란 이름에는 참 휴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잘 쉬고 간다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책읽기의 즐거움은 무릇 좋은 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오른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서가의 책들을 보고 있으면, 책을 비치해 둔 이의 수준 높은 안목이 짐작된다. 도종환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무량스님의 《왜 사는가》,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등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 사이사이에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스캇 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김연수의 《청춘의 문장들》과 같은 수준 있는 책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토익학습서 《토마토》가 난데없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유쾌하기도 하다.

서가 옆 테이블에서 《소박한 기적》을 읽고 있던 유선숙(웹마스터, 32) 씨는 “홍대근처에서 약속이 있는 날이면 한두 시간쯤 먼저 나와 ‘잔디와 소나무’를 찾는다”며 “이곳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한번쯤 책을 집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학들이 밀집해 유흥문화가 넘쳐나는 지역에서 문화전령사의 역할을 다하는 ‘잔디와 소나무’의 분투는 고독하지 않다. 책읽는 원군들이 ‘잔디와 소나무’를 부지런히 들고 나는 까닭이다.



· 풋케어 시설이 마련된 공간 '발의 기쁨'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두 대의 노트북, 사용시간은 1인 15분.

☞ 느낌의 묘미를 한껏 느껴라!

'잔디와 소나무'는 느낌의 묘미를 즐겨볼 수 있는 공간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속도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잔디와 소나무' 속에는 자리하고 있다.

출입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왼편에 놓인 빨간 우체통. "누군가가 그리울 때 편지 한 통 보낼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문구가 씌어진 빨간 우체통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편지를 써 그곳에 놓아두면 '잔디와 소나무' 직원들이 수거, 우표를 붙여 대신 부쳐준다. 이메일이 필사적으로 배달되는 시대에 편지가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 '잔디와 소나무'다. 빨간 우체통 곁에는 국내유선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두 대의 전화기가 놓인 테이블이 있다. 오래고 뜸했던 고향 부모님과의 안부를 나누라는 뜻으로 준비했다. 잡지 <좋은 생각>을 애독했던 사람이라면, 잡지가 가진 철학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 풋케어 시설에선 쾌적한 족욕과 책읽는 기쁨을 함께

맨 앞쪽에 5대의 풋케어 시설이 마련된 공간 '발의 기쁨'

은 '잔디와 소나무'를 서울의 명물로 만든 장본인이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족욕을 즐겨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잔디와 소나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깨끗하게 세탁된 수건이 정리된 협탁 위에는 족욕을 즐기며 읽을 수 있는 책이 놓여 있다. 막 족욕을 시작한 김문철(개인사업, 50) 씨는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오늘 처음 와보았다"며 "누가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로도 풀고 책도 읽을 수 있게 한 배려가 마음에 쏙 든다"며 만족해했다.

많은 장점을 지닌 '잔디와 소나무'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공통적인 한 가지 불평이 있으니, 바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이름이다.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등 그 자체로도 커피향을 물씬 풍기는 좋은 이름을 두고서 '잔디와 소나무'는 자신만의 이름을 고집한다. 에스프레소는 '행복한 동행', 카푸치노는 '햇살마루', 아이스그린티는 '바람과 풍차'다. 일반 커피는 잡지의 이름을 살린 '좋은 생각'. 에스프레소 두 잔과 아이스그린티 한 잔을 주문한다고 할 때 "행복한 동행 두 잔하고 '바람과 풍차' 한 잔"이라고 말해야 한다.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낯이 간지럽다. 물론 본래의 이름대로 주문한다고 해서 주문한 음료를 내주지 않는 일은 없다. 잔디와 소나무가 갖는 느낌의 극치는 여기에 있다. 에스프레소가 왜 '행복한 동행' 이어야 하는지 오래 생각하다보면, 훌쩍 들이키는 차 한 잔에도 천천히, 의미 있는 생각을 더하게 된다.

☞ 속도에 지친 사람이라면 꼭 한번 찾아보아야 할 곳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어떤 일도 용서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도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곳은 없을까. (...) 아주 잠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평화, 그리고 기쁨을 드리고 싶어 잔디 몇 삽 떠다 심고 소나무 세 그루 심었습니다."

'잔디와 소나무'의 테이블마다 놓인 팸플릿 '잔디와 소나무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그런 곳은 없을까, 하고 겸손하게 적었지만, '잔디와 소나무'는 그 물음을 실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왜 그것이 가능한가, 이에 '느림'이 대답을 대신한다. 한 박자 아니 반 박자만 늦추면 곁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용서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잔디와 소나무'에는 '느림을 조장하는' 책이 있기 때문이다.

'잔디와 소나무'는 둥근 원 위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심볼마크로 쓰고 있다. 심볼마크는 일견 느낌의 대표주자인 달팽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잔디와 소나무'에 들러 느낌을 즐겨 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을 표할 것이다. 속도에 지친 사람일수록, 어서 '잔디와 소나무'에 들어와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그 뜻을 이해해 보시기를. ☞

취재_ 박용두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